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와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투쟁 계획서

수신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의

발신 : 못찌

일시 : 1998년 3월 21일 토요일 2시

잠깐! 들어가기 전에 뽀소니!!!

몇일전 뉴스의 일기예보에서 하는말!

"IMF 관리체제가 100일이 넘어선 이시점,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길거리에는 흥청망청 무절제한 소비가 판을 치고 있다. 국가의 위기상황을 망각하고 또다시 소비문화에 빠져 헤이해진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3월 말 꽃샘추위가 다가온 것 같다. 지금은 봄이라고'나들이 나 갈 때가 아닌 것이다. 국가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전국민의 고통분담, 인내와 노력으로 경제 위기 극복하자"

자연의 변화또한 IMF라니, 정말 IMF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시대인가보다.

끊임없이 IMF는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경제위기 시대 여성들의 현실은,

여자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1순위라고.... 주부라는 이유로 기죽은 남편 기살리느라 숨조차 쉬지 말라고.... 어려운 취업난 여대생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시집이나 가라고.... 국가적 혼란과 어려움속에서 여성의 인권유린과 폭력은 어쩔수 없다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린다면 정말로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역사속에서 여성의 권리가 한번도 그냥 주어진 적이 없음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억압과 착취는 항상 강화되었음도 안다.

여성해방을 향한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며 현재의 우리 현실을 직시하며 한걸음 나아가는 미래를 위해 지금, 이순간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의 한계로 많은 내용이 부족하며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0. 들어가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긴 호흡을 가다듬고 조금은 먼곳을 바라보며 현재를 실천하는 것이다.

▶ 왜 성폭력의 문제가 여성운동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쟁점인가?

여성권 확보는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에서부터 시작이다.

여성운동은 성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현실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억압이 현존하는데서 그 존재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여성운동은 여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과 성은 이러한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설정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라는 몸이. 언제나 남성의 소유물로, 여성의 인격과 유린된 성애화된 육체로만 읽혀지면서 배제되어왔기에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주인은 바로 여성자신이라는 관점속에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남성 지배적인 구조와 문화를 반영한 것이 바로 성폭력의 문제이며 우리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속에서 여성권의 핵심이며 가장 기본이되는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현시기 왜 학칙제정운동이 요구되어 지는가?

대학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무수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간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속에서 중요한 성과 지점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우조교 싸움의 한계속에서 학칙제정에 관심을 갖게된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1) 도덕적 의무외에는 대학당국을 우조교 사건 해결에 나서게 할 근거가 없었다 2) 학생회의 대응은 일회적,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지 못했다 3) 인식전환 촉구와 해결해달라는 구절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4) 유사한 사건이 여러건 계속되었음에도 언제나 논의는 처음부터 시작하고 대응은 주먹구구, 제자리 걸음이었다 5) 1년이상 계속되는 싸움에서 운동의 소재, 방향의 모색이 필요했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학칙제정이 성폭력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구축으로까지 나아감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등이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해결을 넘어서 근절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연대회의 활동속에서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성폭력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방향은 여성의 성적 자율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할 과제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관점속에서만 우리는 제정된 학칙이 하나의 종이조각에 그치지 않으며, 단지 학칙제정만을 위한 활동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98년 학칙제정운동은 어떠한 목표속에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실행화 시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처해있는 주관적·객관적 조건에 대한 고려속에서)

연대회의 차원으로 공동의 학칙제정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은 하나의 캠페인에서 학칙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만으로 국한될 수 있는 문제의식이 아닌 것이다.

그러했을 때 연대회의의 학칙제정운동은 어떠한 공동의 목표속에서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1.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의 의의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 형성과 세력화

여성운동 단위의 세력화 및 대학사회 여성운동의 대중적 세력화

사안별, 수동입적 해결을 넘어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물적 구축

2. 방향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운동의 방향성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으로 여성의 성적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인 동의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대중적인 공유속에서 서로의 성적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규약의 의미인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의 기본적인 전제는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입장으로 성폭력에 관련한 모든 언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 성적 자율권의 침해여부, 조사과정과 처벌, 예방과 재교육 등의 것들이 여성의 입장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 지속적인 여성적 관점의 담론형성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자치규약(대학구성원의 자율적인 동의에 근거한 규약)으로서의 학칙제정 의미속에서 대학 운영의 민주주의에 대한 제기와 투쟁과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 실물적인 장치구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투쟁이어야 한다.

→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서 실물화 시켜내기 위한 다방면의 계획과 투쟁이 필요하다.

전문가와의 연개, 학교당국과의 투쟁/자치기구들과의 연개(학내 기구활용의 문제), 교육부나 정부 여특위등을 통한 학교당국의 강제방법등등

▶ 여성문제의 대중적 쟁점화와 여성운동의 대중적 세력화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여성단위들만의 활동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학사회내에 주요 쟁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한 지반이 취약한 여성운동의 세력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운동진영에 대한 공동 활동의 촉구

여성연대회의 차원의 공동호름과 활동의 강화

3. 연대회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이전 모임의 논의내용을 포함하여 견해를 간단히 서술)

▶ 운영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되 주1회(혹은 2주1회)의 총화자리가 필요하겠다.

> 학협의 역할

> 학칙가안검토팀

전문가와의 안정적 연대활동(상담소등)

가안완료

여성운동단위들의 교양작업(가안 내용 논의/성폭력 학칙제정 및 실제 운영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상담소, 정제위, 접수 및 해결과정 등등)

> 제정운동팀

공동 제정운동에 대한 계획 및 집행

캠페인 활동에 대한 지원

4. 사업계획

■ 공동 사업에 대한 제안

(1) 학내 성폭력 실태와 학칙제정운동에 관한 공동 설문조사 - 4월

(2) 학칙제정투쟁 선포식(결의대회) - 5월초

- 결의 대회 / 기자회견 / 학칙제정운동의 필요성 및 제정운동의 방향성에 관한 대토론회

(3) 대학내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공동 서명전 - 5월

(4) 방중 여성운동단위 총회때 학칙제정운동 1학기 활동 총화(평가정리 및 하반기 활동 결의) - 8월

■ 시기별 계획

현재 - 3월 : 단위 안정화 및 계획 완료시기

전체흐름 공유

구체 캠페 전략과 계획완료

학칙가안 전문가 1차 검토완료

여성운동단위 주체교양학교(학칙가안에 대한 설명 및 구체적으로 학칙제정시 유의점 및 방법등등)

4월 : 학칙제정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여론화시기(학내 대중들의 조직화에 방점)
학칙제정 위원회의 대중적 모집과 단위교양
대학내 성폭력의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그속에서 학칙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기간동안에 다양한 교양사업들 배치 -> 학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 및 성폭력의 문제를 여성적 관점에서 재구성)

5월 : 학칙제정운동 본격적 돌입시기

학칙제정투쟁 선포식(결의대회) - 학칙제정운동의 필요성 및 제정운동의 방향성에 관한 대토론회

교수/학교/학생-학칙제정위원회 공청회(1차안)

학칙제정을 위한 서명전

서명전 기간에 다양한 방식의 여론화 작업 계획선전, 상시적 토론회 개최, 올바른 성인식과 보를 위한 교양/사회단체 저지연대 및 사회 제정운동 등의 교수진과의 연대모색/여론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여성정책, 교육부등을 감동하여 학교측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실질적 협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모색/운동)

8월, 방중 : 평가정리 및 하반기 활동준비

캠별 1학기 활동 정리 및 이후 하반기 계획 확보

여성총회서 개입 - 상반기 활동 총화판